



김하늘이 15일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이색 대결에서 카레이서 최명길의 제네시스 쿠파가 출발선을 통과하는 순간 드라이버샷을 하고 있다. 리앤에스 제공

골프공과 자동차 어느게 빠를까

김하늘-최명길 대결 무승부

여자골퍼가 드라이버로 친 공이 빠를까, 아니면 카레이서가 모는 차가 빠를까?

국내 모터스포츠대회인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3전이 열린 15일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한국여자프로골프 간판스타 김하늘(24·비씨카드)이 지난해 '제네시스쿠파 챔피언십' 챔피언에 오른 카레이서 최명길(27·솔라이트인디고)과 이색 대결을 벌여 관심을 끌었다. 이벤트 명칭은 '현대자동차 스피드업 빅매치'.

최명길의 제네시스쿠파가 서킷 한 바퀴를 돈 뒤 출발선을 통과하는 순간(차량 속도 시속 150km), 김하늘이 드라이버샷(시속

200km)을 한 뒤 제네시스쿠파와 골프공이 정확히 200m를 통과한 기록을 재 우열을 가리는 이벤트였다. 첫번째 대결에서는 최명길이 웃었다. 200m 구간을 5초1에 통과해 김하늘(5초3)을 0.2초 차로 제친 것이다. 하지만 두번째 대결에서는 김하늘이 5초2를 기록해 0.1초 이겼다. 전날 리허설 때 제네시스쿠파는 4초 초반대를 기록했으나, 이날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는 바람에 속도가 느려졌다고 대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하늘은 경기 뒤 "(레이싱카의) 무시무시한 굉음과 스피드에 가슴이 쿵쿵거렸다. 자동차의 엄청난 스피드에 새삼 놀랐다. 그래도 1승을 거둬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무 선임기자



‘총알 탄’ 대결 15일 전남 영암군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 열린 2012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에서 제네시스 쿠페 챔피언십 3라운드 결승 경기가 열리기 전 특별 이벤트로 프로골퍼 김하늘 선수의 드라이버 샷과 레이스카의 속도 대결이 펼쳐졌다. 레이스카가 뒤에서 달려오다 타구 지점에 이르러 김 선수가 타구를 하는 방식으로 200m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 대결은 1-1 무승부로 끝났다. 영암=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골프공 vs 레이스카, 속도 대결 누가 빨랐을까

KSF KOREA SPEED FESTIVAL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3라운드

빛속에서도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14, 15일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대회 ‘2012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 3라운드에 참가한 65대의 레이스카는 굵은 날씨 속에서도 기량을 뽐냈다.

프로 클래스인 제네시스쿠페 챔피언십에서는 김중근 선수(아트라스BX)가 우승을 차지했다. 창단한 지 1년에 불과한 채널A 동아일보 레이싱팀은 3위에 올랐다. 국내 첫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골프공과 레이스카의 속도 대결은 1-1 무승부로 끝났다.

KSF는 동아일보 현대자동차 기자자동차 한국 타이어 한국셀섹유 성우오모티브 서한 현대모비스 현대해상 현대글로비스가 공동 후원한다.

● 굵은 날씨 속 막판까지 혼전

결승전이 열린 15일 제네시스쿠페 챔피언십에서는 끝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명승부가 펼쳐졌다. 예선 1~3위를 차지한 김중근, 최명길(솔라이트인디고), 조항우 선수(아트라스BX)는 첫 바퀴부터 숨 막히는 자리싸움을 벌였다.

3.045km의 트랙 25바퀴를 도는 결승전에서 3바퀴를 남기고 상위권에 이변이 생겼다. 예선 결과에 따라 6번 위치에서 출발한 이승진 선수(채널A 동아일보)가 추월을 계속하며 3위로 올라선 것이다. 경기 종료로 알리는 체커기가 하늘을 가를 때까지 이 선수는 3위를 지켰다. 신생 채널A 동아일보 레이싱팀이 명문 솔라이트인디고와 아트라스BX를 위협할 만한 존재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예선 5위였던 같은 팀 조

김하늘-최명길 1대1 박빙 무승부 동아일보팀 창단 첫 3위에 올라 ‘불국단’ 김동성-심권호도 참가

성민 선수는 7위에 올랐다.

최종 1위는 37분16초530의 김중근, 2위는 37분16초871의 최명길 선수가 차지했다. 1, 2위 격차는 0.341초에 불과했다. 3위 이 선수의 기록은 37분21초968이었다. 팀의 올 시즌 마수결이 우승을 따낸 김 선수는 “이번에는 절대 1위를 내줄 수 없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며 “같은 팀 조항우 감독 겸 선수가 뒤를 잘 막아준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클래스에서는 강병휘 선수(아반떼 챌린지·44분41초282)와 박동성 선수(포르테



15일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에서 제네시스 쿠페 챔피언십 3차전 결승에 출전한 레이스카들이 트랙을 달리고 있다. 영암=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롭 챌린지·42분16초379)가 우승을 차지했다.

● ‘불국단’의 도전, 결과는 21일 채널A에서

주말을 맞아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 2000여명은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즐겼다.

채널A 인기 프로그램 ‘불멸의 국가대표’의 김동성 선수(소프트트랙 전 국가대표)와 심권호 선수(레슬링 전 국가대표)는 직접 ‘아반떼 챌린지’를

레이스에 참가했다. 김 선수는 “모터스포츠는 쇼트트랙과 비슷한 점이 많아 전부터 관심이 컸다”고 말했다. ‘불국단’의 흥미진진한 레이스 도전 결과는 21일 오후 10시 50분 채널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널A는 이 방송에 앞서 같은 날 낮 12시 10분부터 KSF 3라운드를 녹화 중계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김하늘 선수와 레이서 최명길 선수의 ‘골프공 대 레이스카’ 속도 겨루기는 박빙 끝에 1-1 무승부로 끝났다. 트랙 한 바퀴를 먼저 돌며 가속도를 붙인 레이스카가 출발점을 통과하는 순간 김 선수가 드라이버 샷을 날려 직선주로 200m 앞 결승점에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를 가리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대결에서는 김 선수가 약간 늦게 스윙을 하는 바람에 레이스카가 먼저 들어왔지만 두 번째는 힘차게 뻗어나간 골프공이 간발의 차로 앞섰다. 김 선수는 “골프의 자존심을 지켜 다행”이라며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완승을 거두겠다”면서 밝게 웃었다.

가족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이덕주 씨(31·전남 영암)는 “갈수록 경기가 흥미진진해지고 다채로운 행사도 많다”며 “계속 보러 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KSF 4라운드는 다음 달 25일 강원 태백레이싱파크에서 헬모바일 슈퍼레이스와의 교류전으로 열린다.

영암=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강릉군 기자 windup@donga.com

공동후원: 東亞日報

